2017
평화재단 활동보고서

The Peacefoundation Annual Report 2017

The Peace foundation Annual Report 2017
평화재단 2017 활동보고서

펴 낸 날 2018. 8.22
펴 낸 곳 재단법인 평화재단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중앙로 62 (06640)
연 락 처 TEL. 02 581 0581 / FAX. 02 581 4077 / E MAIL. staff@pf.or.kr
홈페이지 www.pf.or.kr

The Peace
Foundation
평화재단

목차

Ⅰ. 인사말 ····· 4

Ⅱ. 평화재단소개 ····· 6

Ⅲ. 2017 사업별 활동보고 ····· 8

1. 평화연구원 ····· 12

1) 현안진단 ····· 12

2) 콜로키움 ····· 13

3) 전문가모임 ····· 15

4) 심포지엄 ····· 17

5) 전문가포럼 ····· 23

6) 정세토크 ····· 25

7) 세미나 ····· 26

8) 좌담회 ····· 27

9) 출판 ····· 29

2. 평화교육원 ····· 30

1) 통일열린마당 ····· 32

2) 기획강좌 ····· 33

3. 평화운동 ····· 36

1) 평화통일 네트워크 ····· 38

2) 한반도 평화캠페인 ····· 41

- 트럼프 방한 즈음 시민평화행동 ····· 42

- 평화촛불집회 및 평화 피켓 릴레이 ····· 43

- 2017 한반도평화대회 ····· 44

3) 행복한대화 강연회 ····· 45

4) 법륜스님과 함께하는 행복학교 ····· 50

5) 청년활동 ····· 52

Ⅳ. 재정보고 ····· 58

Ⅴ. 함께하는 사람들 ····· 60

인사말

2017 평화재단 연례보고서를 펴내며

2017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출발하였습니다. 촛불의 민심과 기대를 등에 업고 출발한 문재인 정부는 19대 대선에서 높은 득표율에도 불구하고 총 득표수는 전체 과반이 못 되었습니다. 또한 진보 정권으로서 외교 안보 분야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부정적인 인식도 깔려있던 차, 출범 직후부터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한 안보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적폐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주요한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삼았고, 이런 국민적 여론은 문재인 정부의 높은 지지율을 뒷받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북 관계는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북한과 미국의 대립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북미는 상호비난의 수위를 높여가며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공공연히 협박을 일삼았으며,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맞서 미국은 항공모함과 온갖 전략무기를 출동시키는 등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는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평화재단은 늘 우리 사회에 통일이라는 화두를 던져왔지만, 북미간 대립 격화와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속에서는 평화를 지키는 일이 더 간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반기 새 정부의 외교 정책을 진단했던 연구원 심포지엄이, 하반기에는 한반도가 자칫 전쟁의 기로에 서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연구원의 현안진단은 나날이 증폭되는 전쟁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남북한 정부와 시민사회에 부지런히 정세 분석과 해법을 제시해 왔습니다.

교육원도 새 정부가 지향해야 할 가치로 경제와 민주주의 정책에 대해 깊이 고찰하는 연속강좌를 마련하였습니다. 새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나, 지난 정부 기간 벌어진 국방 비리도 일반 시민들의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북핵 위기 아래 한반도 평화의 길은 무엇인지, 또 한미동맹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 정책은 어떤 대안을 모색할 것인지를 되묻는 시민 강좌도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압박과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11월은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최고조에 이를 때였습니다. 평화재단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라

도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막아내야 한다는 결연함으로 거리로 나섰습니다. 몇 개의 촛불이 모여서 들불을 이루고, 전국 수백만의 촛불이 결국 국정 농단의 세력을 몰아냈던 것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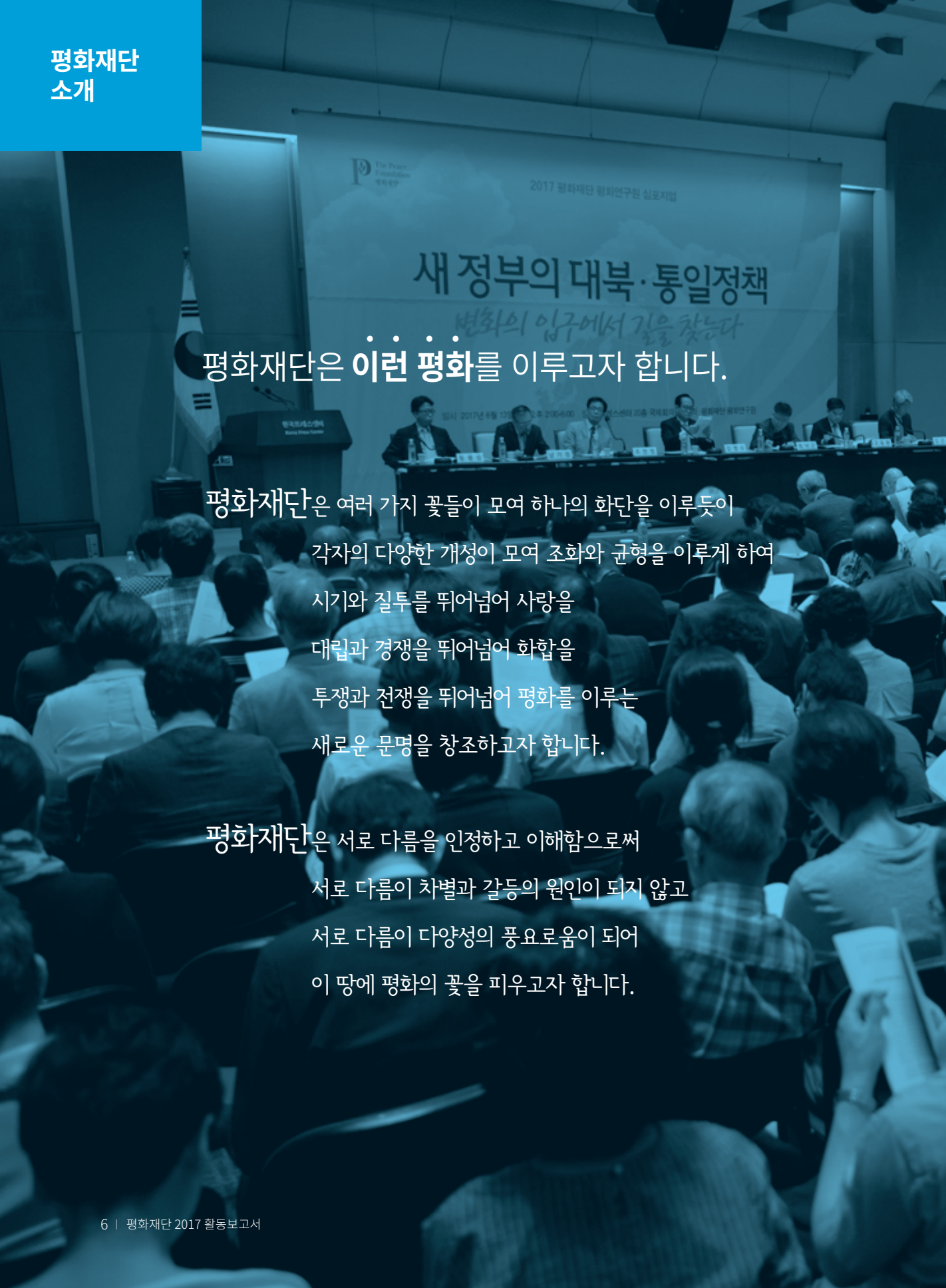
먼저 뜻있는 사회 원로와 종교인들께서 전쟁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일부 시민단체와 함께 세종로에서 거리 집회를 조직하였습니다. 5천여명 이상이 참가한 평화집회는 어떤 정치적 입장도 넘어서서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함성과 합창으로 흘러넘쳤습니다. 그러나 평화대회는 성공적이었지만, 전쟁의 먹구름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우리는 긴장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국 각지의 행복학교 활동가들과 통일의병, 그리고 재단의 후원회원들은 매일 자기 지역에서 평화 릴레이 캠페인을 벌이고, 주말마다 평화집회를 이어갔습니다.

행복학교 활동가들은 행복학교를 개설하고 행복강연 행사를 준비하면서도 평화 캠페인과 집회를 준비하느라 늘 분주했고, 통일의병 활동가들도 시민학교를 운영하면서 거리 집회의 실무를 분담해 나갔습니다. 청년 활동가들 역시 청춘콘서트와 청년역사기행을 진행하면서 평화의 담론을 확산해 나갔습니다.

평화 캠페인과 집회는 연말까지 이어져 12월 23일 한반도 평화대회로 승화하였습니다. 전국 곳곳은 물론 세계 각 나라의 주요 도시에서도 이어져 온 평화 캠페인은 1만인 평화 선언으로 대미를 장식하였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간절히 염원했던 우리의 바램으로 2018년 새해 들어 북한의 신년사로 평화의 분위기가 싹트고,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로 전쟁의 위협이 한층 수그러들게 되었습니다.

평화재단은 북핵을 없애려고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한 미의 일부 극우적인 여론에 맞서 평화를 지키자는 합리적인 대다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로 또렷이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아울러 단일 이슈로 전국적, 전 지구적 동시다발 집회를 운영해봄으로써 국제 평화 문제에 있어서 작은 책임이라도 맡는 일원으로 참여할 가능성을 확인하는 성과를 남겼습니다. 2017년 한 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함께 애써왔던 임원진과 연구위원, 강사진, 국내외 활동가와 봉사자, 후원회원 등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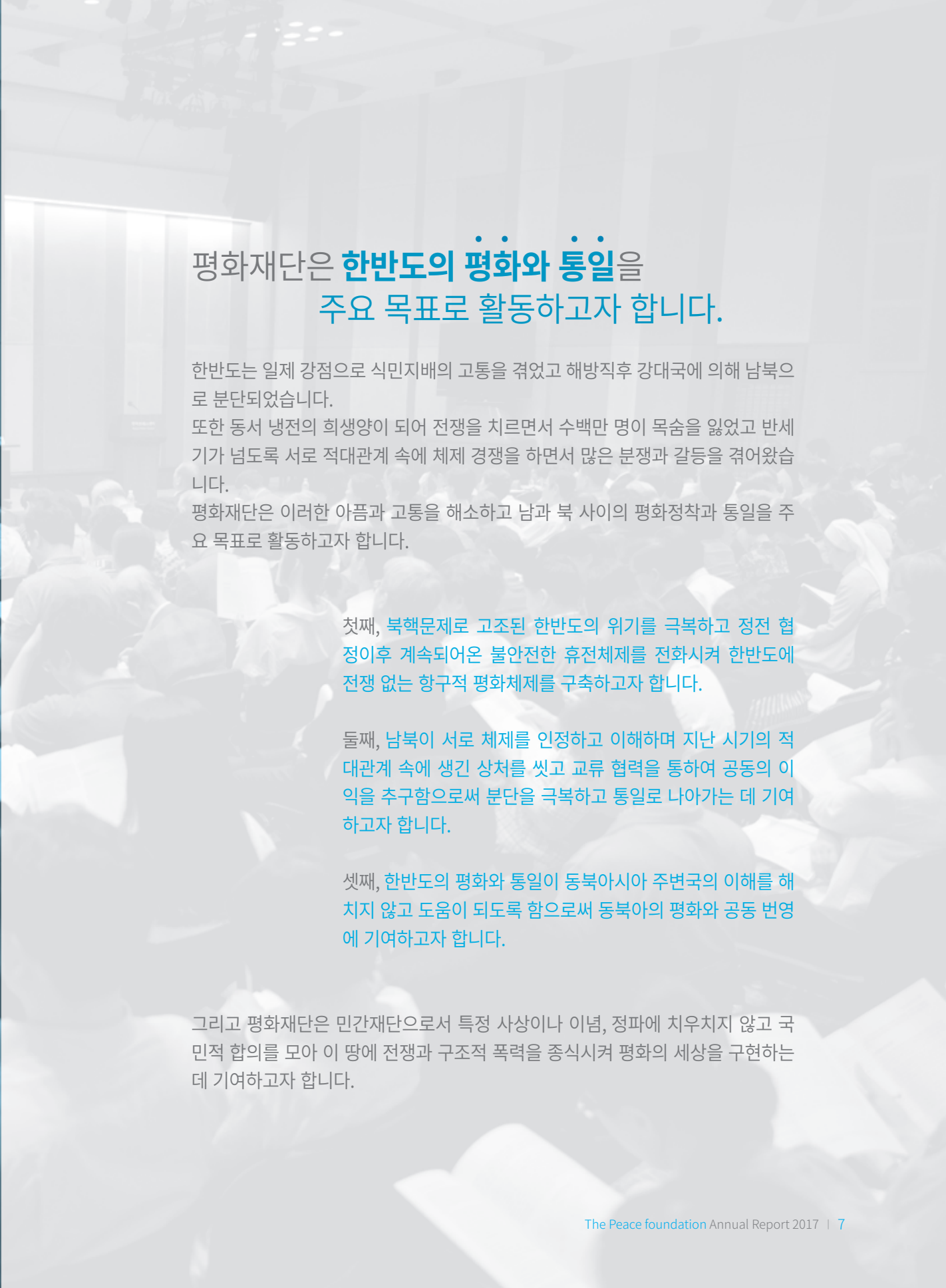
2018년 8월 평화재단



평화재단은 **이런 평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평화재단은 여러 가지 꽃들이 모여 하나의 화단을 이루듯이
각자의 다양한 개성이 모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하여
시기와 질투를 뛰어넘어 사랑을
대립과 경쟁을 뛰어넘어 화합을
투쟁과 전쟁을 뛰어넘어 평화를 이루는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고자 합니다.

평화재단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함으로써
서로 다름이 차별과 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고
서로 다름이 다양성의 풍요로움이 되어
이 땅에 평화의 꽃을 피우고자 합니다.



평화재단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주요 목표로 활동하고자 합니다.

한반도는 일제 강점으로 식민지배의 고통을 겪었고 해방직후 강대국에 의해 남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또한 동서 냉전의 희생양이 되어 전쟁을 치르면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반세기가 넘도록 서로 적대관계 속에 체제 경쟁을 하면서 많은 분쟁과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평화재단은 이러한 아픔과 고통을 해소하고 남과 북 사이의 평화정착과 통일을 주요 목표로 활동하고자 합니다.

첫째, 북핵문제로 고조된 한반도의 위기를 극복하고 정전 협정이후 계속되어온 불안전한 휴전체제를 전화시켜 한반도에 전쟁 없는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둘째, 남북이 서로 체제를 인정하고 이해하며 지난 시기의 적대관계 속에 생긴 상처를 씻고 교류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셋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동북아시아 주변국의 이해를 해치지 않고 도움이 되도록 함으로써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평화재단은 민간재단으로서 특정 사상이나 이념,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적 합의를 모아 이 땅에 전쟁과 구조적 폭력을 종식시켜 평화의 세상을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7 사업별 활동보고

01 평화연구원

1) 현안진단
2) 콜로키움
3) 전문가모임
4) 심포지엄
5) 전문가포럼

6) 정세토크
7) 세미나
8) 좌담회
9) 출판

02 평화교육원

1) 통일열린마당
2) 기획강좌

03
평화운동

1) 평화통일 네트워크

2) 한반도 평화 캠페인

3) 행복한 대화 강연회

4) 법륜스님과 함께하는 행복학교

5) 청년팀

1. 평화연구원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한국 사회는 긴 정치적 혼돈의 터널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점에 섰습니다. 그러나 뿌리 깊은 잘못된 의식의 틀과 관행들을 바로 잡고 변화의 길로 나아가는 일은 험난하기만 했습니다. 특히 2017년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 안보환경은 평화에 역행하면서 그 파고가 더욱 높고 거칠어지기만 했습니다.

북한은 핵 · 미사일 개발의 길을 무한질주 했으며, 새롭게 출범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강경일변도의 정책을 구사했습니다. 북 · 미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소위 '말폭탄' 교환은 위험수위를 넘나들었습니다. 또한 사상 최대, 최고라는 수식어가 붙은 한미군사연습이 실시되고 미국의 전략무기들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결코 녹록치 않은 한반도의 외교 · 안보환경 속에서도 평화연구원은 '오직 평화가 답'이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집단지성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7년 현안진단의 기조는 한국과 미국의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반도 문제의 해결 위한 근본적 인식의 전환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북핵 위기국면이 심화되고 북 · 미간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대화와 협력을 촉구했으며, 주요 현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상 · 하반기 두 차례 개최된 심포지엄 역시 새로운 외교 · 안보의 길을 모색하는 주제로 꾸렸습니다. 또한 시시각각 변화하는 한반도 국제 정세 속에서 시의성 있는 이슈를 다루기 위해 전문가 포럼, 좌담회, 세미나, 정세토크 등 다양한 형식의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평화연구원은 척박한 이 땅의 평화 연구를 활성화하고자 2017년도에 콜로키움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에 대한 전문성과 열정을 갖춘 연구자들의 모임 8개가 선정 되었으며, 각기 매월 한 번의 심도 있는 연구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평화재단 콜로키움 지원 사업은 이제 첫 발을 내디뎠으나 앞으로 평화 문화를 확산하는 씨앗이 되리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평화연구원은 실천적 한계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의 외교 · 안보 정책이 가야할 길을 제시하고 위기에 대해서는 조기경보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넘어 항구적인 평화의 정착, 그리고 궁극적으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1. 평화연구원

1) 평화연구원 | 현안진단

The Peace Foundation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현안진단
CURRENT AFFAIRS BULLETIN

호 수	발행일시	제 목
157	2017.01.06	북한의 민심과 '자력자강',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158	2017.01.25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을 한반도 문제 해결의 기회로 삼자
159	2017.02.07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방한에서 '기회'를 보다
160	2017.02.17	김정남의 죽음과 김정욱의 억류
161	2017.03.03	동북아 군비경쟁의 격화, 안보정책의 표류를 넘어
162	2017.03.17	촛불은 이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타오른다
163	2017.04.06	새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전략적 인내'에서 '전략적 견인'으로
164	2017.04.27	대화의 기운은 국제공조의 제2국면에서 나온다
165	2017.05.10	재조산하(再造山河)의 과업과 외교안보 정책 방향
166	2017.05.26	비핵화를 넘어 남북관계의 영역을 만들어야 한다
167	2017.06.16	외교 정상화를 위한 진검승부를 피하지 말라
특집	2017.06.20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로드맵
168	2017.06.26	방치가 빚어낸 인권 참사, 분노를 넘어 관여로 가자
169	2017.07.10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평가와 풀어야 할 숙제
170	2017.08.10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100일 – 포기와 희망적 사고를 함께 경계하자
171	2017.08.26	이제 우리가 한반도 문제의 게임체인저가 될 때이다
172	2017.09.10	위기가 깊어지면 기회는 넓어진다
173	2017.10.01	국면전환을 능동적으로 이끌 '문재인 독트린'을 제시하라
174	2017.10.14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게임의 판'을 바꾸자
175	2017.11.03	일본 총선과 평화의 숨은그림찾기
176	2017.11.16	한국의 외교안보, 콜럼버스의 달걀을 깰 때
177	2017.11.30	조건 없는 대화로 한반도 평화의 출발점을 삼자
178	2017.12.15	이제 한반도문제 해결의 진검승부에 나설 때이다

2) 평화연구원 | 콜로키움

시민성에 기반한 남북한 평화공동체 만들기

일 시	주 제
2017.11.07	수소폭탄 시대의 도래와 한반도 미래 전망
2017.11.20	대한민국 간첩사건의 변화추이와 국가정보원 개혁
2017.12.14	독일통일과 한반도 (촛불혁명과 다시 사람의 통일)

한반도 통일과 지정학의 힘 : 러시아의 역할을 중심으로

일 시	주 제
2017.10.17	북핵문제 해결에서 러시아의 역할
2017.11.28	러시아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

남북한 사회통합과 전환기 정의

일 시	주 제
2017.11.19	일제 식민지 시대와 전환기 정의
2017.12.20	남북전쟁과 전환기 정의

냉전문화 해소 : 진보와 보수의 평화적 공존 – 분단이념의 적폐청산

일 시	주 제
2017.10.30	소중화 한국정치의 과두제적 습속 : 좌우당파정치의 기원과 지속
2017.11.30	남남갈등과 남북갈등의 근원을 찾아서 : 해방 후 남북 정부수립 과정을 중심으로

포스트 6.15체제를 준비하는 새로운 평화 패러다임 모색

일 시	주 제
2017.11.10	북한에서 부동산시장 형성과 전망
2017.12.07	Post 6.15, 10.4 : '치유의 역사'와 '냉전 폭력'

민주주의와 통일국가를 위한 새로운 정치문화적 기반 연구

일 시	주 제
2017.10.26	북핵문제 해결과 북한 UN신탁통치방안
2017.11.27	입법은 왜 실패하는가
2017.12.29	조선의 소중화 관념과 대외인식 & 근대민족 정체성의 형성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연구

일 시	주 제
2017.10.23	북한의 핵 도발-협상 전환요인 연구 : 시기별 비교분석과 한국의 북핵정책에 대한 함의
2017.11.20	한중수교 25주년 평가 및 향후 한중관계 발전 방향
2017.12.19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현황과 남북교류협력의 과제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의 제도와 전략 : 유럽연합의 경험을 참고하여

일 시	주 제
2017.12.04	연구내용 소개 및 콜로키움 진행일정과 과제 공유

3) 평화연구원 | 전문가모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방안 연구

일 시	주 제
2017.02.28	최근 한반도 정세평가와 차기정부의 과제
2017.04.14	남북관계 정상화의 제약요인과 극복방안
2017.07.25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제 및 추진 방향

평화외교전략 연구

일 시	주 제
2017.01.19	국방정책 주요 이슈
2017.02.02	2017-2022 : 국제 정세 변화와 한국의 차기 정부의 대응방안
2017.03.14	북한의 현황과 전망 –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비전 모색을 위한 연구

일 시	주 제
2017.01.17	사회비전팀 모임 운영방안 논의
2017.01.31	아젠다 8개 분류안 논의, 총론 원고 검토
2017.02.07	8개 아젠다의 소주제 선정
2017.02.13	담당 주제의 개조식 정리와 발표
2017.02.21	칼럼원고 검토 (2017년 한국, 무엇을 해야 하나?)
2017.03.07	칼럼원고 검토 (미·중·일 국가주의 충돌에 직면한 한국외교는 어디로? /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의 길에서 다시 쓰는 출사표)
2017.03.10	칼럼원고 검토 (공무원의 현주소를 묻는다 /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와 새로운 인간)
2017.03.16	칼럼원고 검토 (외국인 이주자 200만 시대, 좋은 이웃 되기 / 탈공업화 함정과 박정희 경제 시스템의 사망 그리고 채무노예의 해방)
2017.03.22	칼럼원고 검토 (북핵문제 하에서 남북경협의 새로운 모색을 위한 제언 / 새로운 한국을 향한 출발선에 서서)

북한현실의 이해와 연구

일 시	주 제
2017.04.13	북한 에너지 및 정치·경제 상황 이해
2017.10.16	북한 현실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 이해
2017.11.13	북한 현실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 이해
2017.12.19	북한 현실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 이해

안보환경과 국방의 미래 연구

일 시	주 제
2017.10.24	북핵·미사일 도발과 우리의 전략적 대응
2017.11.23	일본의 안보정책과 한반도 평화
2017.12.18	한반도 핵전쟁 가능성과 북핵 대응전략

4) 평화연구원 | 심포지엄

2017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심포지엄 | 2017년 6월 13일

대통령 탄핵과 비정상적 국정운영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종식되고 새 정부가 출범하였다. 우리 국민은 새 정부가 약속한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지만 우리 앞에는 여전히 엄혹한 현실이 그대로 남아 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휘부 공백 상태에서 표류해온 한국의 통일과 외교 · 안보정책은 이제 올바른 항로를 설정해야 한다. 한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반도 평화의 책임 있는 주역이 되어야 한다. 미 · 중 패권경쟁의 격랑을 넘어 북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항구적 평화의 바탕 위에 국익을 지속적으로 증강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전력을 기울일 때다.

이에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은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다각도로 짚어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새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와 바람직한 통일·외교 · 안보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마련했다. 먼저 김형기 평화연구원 원장이 평등과 분권, 소통과 통합 등 촛불의 정신을 녹여내 우리나라가 한반도 정책에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심포지엄이 새 정부가 새로운 통일외교 정책을 마련하는데 밑거름이 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문을 열었다.

1부에서는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사회로 '통일·외교 환경의 변화, 새 정부 무엇을 할 것인가?' 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대북 · 통일정책의 성찰적 회고와 교훈'을 주제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동북아 질서의 지각변동과 한반도'라는 주제로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가, '김정은의 북한, 무엇이 달라졌나?'에 관해 동용승 굿파머스연구소 소장이 발표를 했다. 다음으로 여의도연구원 안보통일센터 수석연구위원 정낙근 박사,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와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김근식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2부에서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의 사회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김대중 정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노무현 정부),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박근혜 정부)을 모시고 '바람직한 대북 · 통일정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대담이 진행되었다. 정세현 전 장관은 한미동맹의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 이종석 전 장관은 과거 정부의 대북 정책 성과와 한계에 대해 이야기 했고, 류길재 전 장관은 우리나라 현재 외교 상황에 대한 지정학적 위기와 시민 사회의 역할을 제시했다.

행사개요

주 제 새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 : 변화의 입구에서 길을 찾는다

일 시 2017년 6월 13일 (화) 14:00 ~ 18:00

장 소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프로그램

여는 말 김형기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장)

주 제 통일 · 외교 환경의 변화, 새 정부 무엇을 할 것인가?

사 회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발표 1 대북 · 통일정책의 성찰적 회고와 교훈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 2 동북아 질서의 지각 변동과 한반도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발표 3 김정은의 북한, 무엇이 달라졌나?
동용승 (굿파머스연구소 소장)

토 론 정낙근 (여의도연구원 안보통일센터 수석연구위원)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대 담 바람직한 대북 · 통일정책을 위한 제언

사 회 윤여준(윤여준정치연구원 원장, 전 환경부 장관)

대 담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상임대표, 전 통일부 장관_김대중 정부)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전 통일부 장관_노무현 정부)
류길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전 통일부 장관_박근혜 정부)

닫는 말 법륜스님 (평화재단 이사장)

평화재단 13주년 기념 심포지엄 | 2017년 11월 27일

평화는 우리 모두가 갈구하는 소중한 가치다. 그러나 최근 북한은 핵무기 개발의 완성을 공언하고 미국의 전략폭격기 편대가 동해상을 비행하는가 하면 서로가 거리낌 없이 한반도의 전쟁을 언급하는 것이 일상사가 되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제2기 시진핑 시대를 구축했고, 일본도 아베 총리가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며 정책 추진의 강한 동력을 마련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동아시아 순방이 예정되어 있는 등 한반도를 둘러싸고 새로운 안보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긴장과 대립으로 치닫던 국제역학관계도 변화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은 막아야 한다.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다. 한반도 평화의 근본적 위협 요인을 제거하고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여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 상태를 이룩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때다.
이에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은 창설 13주년을 맞이하여 주변정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가 주도하는 한반도 비핵·평화의 해법을 모색하고자 심포지엄을 마련하였다.

이 행사는 기조 발제를 맡은 홍석현 한반도 평화만들기 이사장 등 많은 내빈과 300여명의 청중들이 함께 한 가운데 시작되었다. 먼저 김형기 평화연구 원장이 현재 한반도의 상황은 6.25 이후 최대의 위기라 할 정도로 엄중하지만, 사태가 극에 달하면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는 것이 인류 역사의 교훈이므로,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평화의 제전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의 현실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이야기해보자고 문을 열었다.

기조발제를 통해 홍석현 이사장은 비핵화는 반드시 평화적 수단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핵무장 완성 전에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북한에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며, 더 나아가 미국과 북한간의 막후대화, 한국을 중심으로 한 주변국들의 대북 국제공조, 남북교류, 대북정책에 대한 국론 결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부에서는 박명규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의 사회로 '문재인 정부와 한반도 평화실현의 과제'를 주제로 김창수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이, '동북아 평화공동체 구현의 길'을 주제로 김흥규 아주대학교 중국정책연구소장이 발표를 했다.
김창수 보좌관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남북관계의 일관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을 존중하고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 실천 방안으로 국내적으로는 국민 합의에 기초한 통일국민협약, 남북 관계에서는 남북기본협정, 국제적으로는 평화협정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흥규 소장은 중국의 급격한 부상으로 인한 미국과의 세력전, 북한의 핵무력 완성으로 앞으로 한반도가 어려운 시기를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을 제재하는 국제적 공조에 발맞춰 압박을 강화하되, 내년 상반기에 평화의 기회가 열린다면 적극적인 대화와 협력을 제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주제발표에 대한 의견 개진이 있었다. 먼저 신범철 국립외교원 안보통일연구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 제시와 주변국들과 함께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북한 주민들 스스로 통일을 원하도록 우리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는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발적인 전쟁이 일어나기 쉬운 상황에서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안보능력과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강화하여 북한이 도발과 전쟁을 자제하게 만들어야 하며,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대북 특사 파견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부에서는 최대석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의 사회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전문가인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신각수 전 외교통상부 차관, 문성묵 전 남북장성급 회담대표의 대담이 이어졌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국제적인 공조에 동참하여 최대한의 압박을 가해야 하고, 북한이 핵을 가져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게 국방력을 강화해야 하며.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여 북한 스스로 핵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다는 셈법이 나오도록 해야,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앞서 1부의 패널들과 달리 대체로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강조하는 의견이었다.

행사개요

주 제 기로에 선 한반도, 평화가 먼저다

일 시 2017년 11월 27일 (월) 13:30 ~ 17:00

장 소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프로그램

여는 말 김형기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장)

기조발제 홍석현(한반도 평화만들기 이사장)

주 제 기로에 선 한반도, 평화가 먼저다

사 회 박명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발 표 1 문재인 정부와 한반도 평화실현의 과제
김창수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

발 표 2 동북아 평화공동체 구현의 길
김흥규 (아주대학교 중국정책연구소장)

토 론 신범철 (국립외교원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박영준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

대 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언

사 회 최대석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대 담 김천식 (민화협 통일공감포럼 대표, 전 통일부 차관)
신각수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장, 전 외교통상부 차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전 남북 장성급회담 대표)

닫는 말 법륜스님 (평화재단 이사장)

5) 평화연구원 | 전문가포럼

제75차 전문가포럼 | 2017년 4월 17일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이어 미국의 신속한 사드 포대 배치로 상황은 불가역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한국은 북핵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당사자이면서 동시에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중국의 전면적인 압박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의 외교 · 안보는 주인 잃은 편주가 되어 표류하고 있다. 한국은 외교 · 안보의 자주적 공간을 마련하여 한반도가 미 · 중 패권 경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75차 전문가포럼은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환경 조성 등 보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역할 모색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주 제 미·중 패권 경쟁과 한반도, 우리는 어떻게 돌고래가 될 것인가?

사 회 고경빈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운영위원장)

발표 1 미·중 정상회담과 한반도
이혜정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발표 2 북한의 현실과 김정은 정권의 대외전략
동용승 (굿파머스연구소 소장)

발표 3 북·미 충돌 가능성과 평화를 위한 제안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토 론 이문기 (세종대학교 중국통상학과 교수)
이정철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제76차 전문가포럼 | 2017년 9월 21일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는 악화일로로 가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문제는 표류하고 있다. 급기야 북한은 일본 상공을 지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6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사드의 잔여 발사대 4기가 전격적으로 임시 배치되었으며, 국제사회는 최강의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 8월에는 상호 군사적 수단의 사용은 물론 핵전쟁까지 암시하는 북·미간의 극한적 대립을 경험했다.
소위 '한반도 8월 위기설'의 진행과정에서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과 아울러 안보 무력감을 감내해야 했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에 바짝 다가서고 한반도 안보 환경이 급격하게 변해가는데 손도 못 쓰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시급한 북핵 문제 해결의 단초를 찾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우리가 안주했던 인식의 토대부터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제76차 전문가포럼에서 북핵 위기 국면에서 북한 핵무장의 역사와 전망, 주변 강대국의 대응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한반도 정세에 대한 냉철한 이해를 바탕으로 평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보고자 했다.

주 제 한반도 평화문제의 해부, 새로운 방략을 구한다

사 회 고경빈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운영위원장)

발표 1 한미동맹과 책임국방의 길
김민석 (중앙일보 군사안보연구소장 겸 논설위원)

발표 2 북한의 핵무장과 우리의 대응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원)

토 론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연구기획본부장)

6) 평화연구원 | 정세토크

2017년 3월 정세토크

주제 : 동북아 군비경쟁과 한국 안보정책의 향방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는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세계안보 질서가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의 방위분담을 강력히 요구하며 내년 국방예산을 10%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국방비도 사상 처음 1조 위안 시대를 앞두고 있으며, 일본도 지속적으로 방위력을 증강하고 있다. 여기에다 북한 김정은 정권도 핵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미국은 북핵 위협을 명분으로 사드의 한국 배치를 서두르고 있으며, 중국은 한국에 대한 무차별적인 보복을 예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북아 군비경쟁이 이처럼 날로 심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 사태로 한국의 안보정책은 표류하고 있다. 이에 평화연구원에서는 주변국들의 군비증강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적 난관의 극복을 위해 한국안보정책의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 제 동북아 군비경쟁과 한국 안보정책의 향방

사 회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 담 1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대 담 2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

7) 평화연구원 | 세미나

세미나 | 2017년 5월 17일

지난 7차 노동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을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 규정하고, '핵 · 경제 병진노선'을 항구적 전략노선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이어 9월 9일 9시 30분 5차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이 핵탄두 폭발실험은 핵무기 개발의 최종단계에 근접한 것으로, 실전배치가 멀지 않았다는 심각한 우려를 자아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 정부의 대책은 대북 압박수준의 강화, 핵도발 시 응징 보복과 자체 핵무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심지어 북한의 핵실험을 '사드 배치'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소재로 삼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사안의 위험성, 긴급성에 따라 평화연구원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상기하며 대북 제재와 압박 일변도 정책을 다시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전영일 국제전략화해연구원장을 모시고 북한 핵무기가 실전 배치되는 상황이 오기 전에 이를 동결시키고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의지를 다졌으며, 북핵 위기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비핵화로 나아가는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해보았다.

주 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 과학외교의 전략적 효용성

사 회 이승용 (평화재단 사무총장)

발 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 과학외교의 전략적 효용성
전영일 (국제전략화해연구원장)

8) 평화연구원 | 좌담회

송년 좌담회 | 2017년 12월 8일

평화연구원은 평화재단 3층 강당에서 '촛불 1년, 시대 전환과 한반도發 평화의 길'이라는 주제로 송년 좌담회를 마련했다. 먼저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의 기조발제를 듣고 질의응답 및 전체 토론을 한 후, 콜로키움 참가자들과 평화재단 운영위원, 실무자들의 간단한 인사 소개 순서로 진행되었다.

사회를 맡은 김형기 평화연구원장은 촛불과 평화에 대한 이야기로 좌담회를 열었다. 촛불은 어둠을 걷고 사물을 밝게 비추는 속성이 있다. 어둠을 깨는 촛불의 속성은 국정 농단 세력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와 반성 촉구로, 밝게 비추고자 하는 속성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미래지향적 특징으로 해석하면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고자 하는 시민들의 염원이 촛불혁명을 이뤄냈는데, 과연 그 촛불에 담겨진 시민정신이 무엇이었는지 본질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로부터 평화의 씨앗을 어떻게 발아시켜 나갈지 함께 찾아보자고 하였다.

'촛불 시민 정신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가능성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기조발제에서, 이래경 이사장은 촛불을 있게 한 구질서가 현재 우리를 지배하는 헌정 질서라는 모순이 있다고 하였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구질서를 부정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질서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촛불은 우리에게 새로운 체제로 가는 경로의 설계라는 과제를 던졌다. 구질서의 해체, 즉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적폐 중의 적폐인 분단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로 가야 한다고 하면서, 현재 북한의 핵 수준, 우리를 둘러싼 미국, 중국, 일본의 정치 군사적 이해관계 등을 간략히 설명하고, 남한이 주도하여 비핵화를 이루고,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평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체제의 가능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고, 시간 관계상 아쉽게 자리를 마무리하고 콜로키움 참가자들과 평화재단 실무자들의 상견례 자리가 이어졌다. 그동안 콜로키움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소속 팀 외에는 잘 몰랐던 참가자들과 평화재단 운영진, 실무자들이 서로 얼굴을 익히고 자기소개를 하면서 참여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행사개요

주 제 촛불 1년, 시대 전환과 한반도發 평화의 길

일 시 2017년 12월 8일(금) 15:00 ~ 17:30

장 소 평화재단 3층 강당

프로그램

사 회 김형기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장)

기조발제 촛불 시민 정신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가능성에 대하여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

질의응답 및 토론

인사소개

폐 회

9) 평화연구원 | 출판

『촛불 이후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출판(평재리) | 2017년 6월 30일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연구하는 전문가와 안보정책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호가 폭풍우를 헤치고 평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고민하면서 토론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먼저 북핵 위기의 실상과 대응책을 다루고, 이어서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사정과 우리의 외교방향을 모색하였으며 다음으로 국제정세 일반의 흐름과 우리의 외교안보전략에 대해 수록하였다. 마지막 부분에는 '미중 패권경쟁과 한반도, 우리는 어떻게 돌고래가 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제75차 전문가포럼의 발표와 토론 내용을 실었다.

출판물 개요

주 제 새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 : 변화의 입구에서 길을 찾는다

일 시 2017년 6월 13일 (화) 14:00 ~ 18:00

장 소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목차

프롤로그

1. 북핵 실태와 비핵화 전략
2. 북한의 현황과 전망 :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3. 트럼프의 미국 : 한미관계와 동북아 정세 전망
4. 중미 세력 경쟁 심화의 배경 :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쇠퇴
5. 재기하는 일본과 한일관계
6. 러시아 대외전략의 이해 : 유라시아 전략을 중심으로
7. 국제정세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향
8. 미중 패권경쟁과 한반도, 우리는 어떻게 돌고래가 될 것인가

2. 평화교육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5월 장미 대선으로 시작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제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대한민국에 봄이 다시 시작되는 듯 하였다.

그러나 북한에서 6차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서 대북 압박과 제재 강화로 인해 한반도 정세는 그 어느때보다 전쟁의 위험이 높아졌다.
평화교육원은 이렇게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 서있는 한반도에 영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정치, 외교, 안보 등의 현실 진단 및 대안을 교육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했다.

한국사회가 당면한 정치, 경제, 사회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돌파구로 한반도 통일을 제시하면서 2015년 하반기에 시작한 통일열린마당은 2016에 이어 2017년까지 3년간 총 15번의 강의를 진행하였고 누적 707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모시고,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통일시대를 열어갈 대통령의 자격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고,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새 정부에 대한 희망이 높아진만큼 정치개혁과 더불어 국방개혁까지 척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정의당 김종대 의원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조치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우발적인 한반도 전쟁 발발에 대한 위험 수위가 높았던 무더웠던 8월,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길은 무엇인지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과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김근식 교수의 대담으로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 세계경제, 한국경제의 위기를 종식시키고,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이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으로 산업화를 넘어 무형재 경제로의 구조 전환에 대해 들어보는 최배근교수님의 6주 연속 경제기획강좌를 진행하였다.
조기 대선 직후에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주제로 최동석 강사님을 모시고 자율조직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기획 강좌를 진행하였다.

2. 평화교육원

1) 평화교육원 | 통일열린마당

분단체제가 만든 우리 사회의 구조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고, 분단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문제를 고찰해 보는 시간이었다.
이념 대립과 남남갈등은 세대분열, 계층분열과 함께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 논의와 국론 통합에 커다란 장애로 자리잡고 있다. 이런 현실 앞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유보되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진단해 보고자 하였다.

일 시	강의주제	강 사
2017.04.24	통일시대를 맞이할 대통령의 자격	윤여준(전 환경부 장관)
2017.07.11	국방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2017.08.29	북한의 핵무장 현실화와 한반도 평화의 길	조한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근식(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17.12.11	한미 동맹의 성격과 미래	양욱(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

2) 평화교육원 | 기획강좌

최배근 교수의 6주 연속 경제 강좌

일 시 2017년 2월 27일 ~ 4월 3일 총 6회 매주(월) 19:30 ~ 21:30

강 사 최배근(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수강생 총 339명

2007년 '대 금융위기'가 발발한 지 8년이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의 발발 원인은 해결되지 않고 '일자리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일자리 충격은 기본적으로 탈공업화에서 비롯한다.
각국이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창조산업 및 창조경제의 육성에 국가적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이유는 제조업의 시각으로 창조경제를 육성하려 한 결과이다.

산업화를 넘어 무형재 경제로의 경제구조 전환이야말로 현재의 위기를 종식시키고 미래를 앞당기는 관건이다.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이행기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은 미래의 모습을 읽어내어 그 미래의 싹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만개하게 하는 일이다. 탈공업화 함정은 한국 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세계경제의 위기와 한국경제의 위기의 원인과 해결책을 파헤쳐보는 경제학 특강 시리즈를 진행하였다.

차 수	날 짜	주 제
1강	2017.02.27(월)	미국 시장시스템의 붕괴와 금융위기 그리고 장기 저성장
2강	2017.03.06(월)	일본의 네트워크 시장시스템의 붕괴와 장기불황
3강	2017.03.13(월)	유로존 위기의 원인과 초국가협력
4강	2017.03.20(월)	중국 사회주의 시장시스템의 독자성과 한계
5강	2017.03.27(월)	한국 시장시스템의 종언 : 불공정 공유시스템의 사망과 경제위기
6강	2017.04.03(월)	경쟁과 효율성에 기초한 시장경제에서 협력과 호혜성에 기초한 네트워크 경제로

민주주의로 가는 길

일 시 2017년 5월10일~ 5월31일 총4회 매주(수) 19:30 ~ 21:30

강 사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 소장)

수강생 총 207명

정치야말로 주인의 권한을 발휘하는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가 정치를 혐오하고 있다. 동시에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 이 나라를 이끌어주길 바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인간과 민주주의의 이해에 관한 교육이 부족한 한편, 인간보다 돈을 중요시하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이 사회를 장악했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으로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되었다. 국민들은 이미 각성되었고, 직접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모든 환경은 준비되어 있다.
5월 대선 직후, 새로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바람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정치. 민주주의라고 할수 있다. 박근혜정부와 그 이전부터 암세포처럼 자리잡은 적폐를 도려내고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차 수	날 짜	주 제
1 강	2017.05.10(수)	인간의 존엄성
2 강	2017.05.17(수)	사회적 적폐의 원인
3 강	2017.05.24(수)	분권화된 자율적인 네트워크 조직
4 강	2017.05.31(수)	민주주의로 가는길

3. 평화운동

평화, 나로부터 한반도로 세계로 ! Peace In Kor

3. 평화운동

1) 평화운동 | 평화통일 네트워크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모임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모임'은 평화재단에서 월 1회 정기적 모임을 가졌고, 한반도와 주변 정세를 전망하면서 종교인으로서 평화를 지키고 사회통합을 주도해 나가기 위한 다방면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특히 11월에 북미간 대립으로 전쟁 우려가 심화되자,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비핵평화 전쟁반대'라는 주제를 내걸고 종교 사회 정치원로들의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앞장서서 이끌어 왔다.
기자회견에는 종교인 11명, 시민사회 원로 8명과 전직 국회의장 등 정치원로 5명까지 모두 24명이 참여하여 시국선언을 하였다.

한반도 비핵화와 전쟁방지를 기원하는 종교 · 사회 · 정치 원로 시국선언

일 시 2017년 11월 2일(목) 10:00 ~ 11:00

장 소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

참가인원 77명

프로그램

개 회

여 는 말 박종화 (경동교회 원로목사)

시국선언문 낭독 참가 원로 일동

인 사 말 민병두 (국회의원)

질의응답

사진촬영

내용

한반도 비핵화와 전쟁방지를 기원하는 종교 · 사회 · 정치 원로 시국선언문

-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로 안됩니다

한반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북한은 수백만의 인명을 앗아갈 수 있는 수소폭탄 실험 성공을 공언하고, 미국의 전략폭격기 편대가 중무장한 채 북한 동해상을 비행하는 현실이다. 북한과 미국의 수뇌부는 아무 거리낌 없이 한반도 핵전쟁까지 운운하고 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공언하고 있으며, 미국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가공할 전략무기들을 한반도에 집결시키고 있다. 일촉즉발의 위기가 한반도를 감싸고 있으며,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에서 그 어떤 무력충돌도 대규모 인명피해를 수반함은 물론 그 동안 우리가 피땀으로 가꾸어온 모든 것들을 잿더미로 만들 것이 자명하다.

북한의 핵은 한반도의 불안한 평화마저 송두리째 파괴하여 우리 모두를 공멸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근본적 위협이다. 그러나 북한 핵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한반도 전쟁'이 아무렇지 않게 회자되는 작금의 상황 또한 결코 용인할 수 없다.

이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가 나서야할 때이다. 이념과 정파를 초월하고 민간과 정부 모두가 합심해서 전쟁을 막고 한반도의 비핵 평화를 위해 행동할 때이다. 이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불가하고, 한반도가 북한의 핵 위협 하에 놓이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 우리의 주장

하나,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라.

하나, 미국은 전쟁을 야기할 수 있는 군사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한반도의 평화를 존중하고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라.

하나, 정부는 한반도 전쟁 방지는 물론 어떤 무력충돌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초당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미국과 중국을 동참시켜 북한을 설득하고 강제할 모든 외교역량을 발휘하라.

하나, 국회는 초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촉구와 전쟁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협력 체제를 구축해 북핵 문제해결에 주력하라.

하나, 시민사회는 이념과 정파를 초월해 한반도 전쟁방지와 비핵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1월 2일
한반도 비핵평화와 전쟁방지를 기원하는 종교•사회•정치 원로 일동

종교 · 사회 · 정치 원로 시국 선언 참가자 명단

- 종교계

김대선 전 원불교 평양교구장
김명혁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
김홍진 전 천주교서울대교구 쑥고개성당 주임신부
도 법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장
박경조 전 대한성공회 주교
박남수 한국종교연합 상임대표, 전 천도교 교령
박종화 경동교회 원로목사
법 륜 평화재단 이사장
이기헌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이성택 전 원불교 교정원장
이영훈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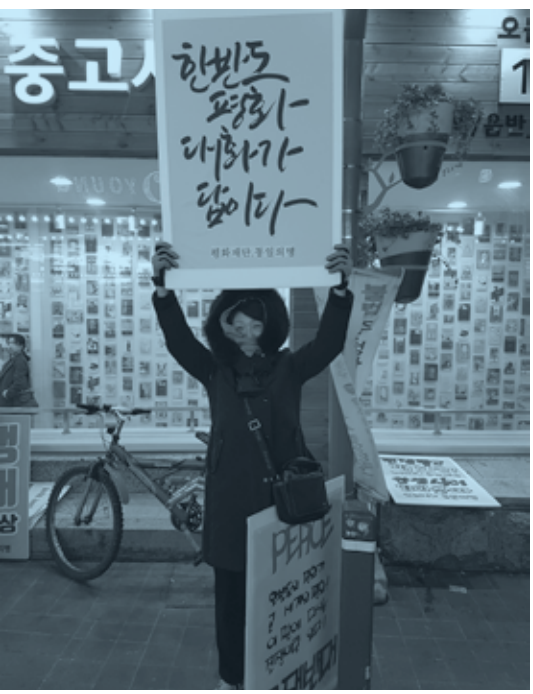
- 시민사회계

김홍신 소설가. 전 건국대 석좌교수
손봉호 나눔국민운동 이사장
신필균 복지국가여성연대 대표
윤여준 나를 만나는 숲 이사장
이부영 동아시아평화회의 운영위원장
이종찬 우당기념관 관장
정성헌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이사장
최상용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 정치계

김원기 제 17대 국회의장
신경식 전 대한민국헌정회 회장
임채정 제 17대 국회의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정의화 제 19대 국회의장

2) 평화운동 | 한반도 평화 캠페인



2017년 한반도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 계속 발생하였다. 미국은 2017년 9월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을 일본 상공을 넘겨 발사한 이후 동해에서 작전 중인 미군함에게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 발사 준비명령을 내렸다. 토마호크 미사일은 미군이 전쟁을 시작할 때 상대의 목표물을 가장 먼저 공격하는 용도로 사실상 전쟁의 시작을 의미한다.
북한도 미국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까지는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며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북한과 미국은 서로 받아들이기 힘든 전제조건을 내걸고 선수용을 요구했다.
미국은 북한에게 핵 포기를, 북한은 미국에게 적대정책의 포기를 주장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으며, 미국도 가공할 전략무기들을 한반도에 집결시키는 등 위기가 한반도를 감싸고 있었다.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졌다.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는 물론 그 동안 우리가 피땀으로 가꾸어온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될 수 있었다.

1%의 전쟁 가능성이 현실화가 된다면 100% 공멸하게 될 것이므로 1%의 전쟁 가능성이 사라질 때까지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의 촛불을 드는 것이 필요했다.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촛불이 이념과 정파를 초월하고 여야를 넘어 전국으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2017년 한해 다양한 평화활동을 진행하였다.

트럼프 방한 즈음 시민평화행동

전쟁반대 평화협상 PEACE NOT WAR

일　　시 2017년 11월 5일(일) 14:00 ~ 17:00

장　　소 세종문화회관 옆 세종로 공원

주　　최 평화재단 통일의병, 참여연대, 시민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참가자 규모 총 6천여명 참가

프로그램

사회 :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1	사회자 인사	14:00	페북 라이브 안내, 발언자 소개
2	인사말	14:05	법륜스님(평화재단 이사장)
3	발언 1	14:11	이태호(시민단체 연대회의 운영위원장)
4	영상	14:15	평화를 위하여
5	[공연] 신나는섬	14:18	망원동 로마니 (연주곡) 항해 (연주곡)
6	발언 2	14:30	이재수 (미주희망연대)
7	시민 발언 3	14:36	이용석 (청년) 이예람 (대학생) 김명숙 (주부)
8	[공연] 성미산마을합창단	14:48	아이떼이떼까이
	모금		동인동 이야기
9	발언 4	14:58	김제동 (방송인)
10	[공연] 우리나라	15:15	우리 하나되어 평화 만들기
11	사회자	15:25	마무리 인사 및 행진 선언, 행진 안내
12	거리행진	15:30	세종로 ~ 안국R ~ 종각 ~ 세종로

평화촛불집회

일　　시 2017년 11월 11일(토) ~ 12월 16일(토)

장　　소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제주 지역에서 매주 토요일 총 6회

해　　외 8개국 26개 지역에서 36회 진행 /
미국(9개), 캐나다(2개), 독일(3개), 프랑스, 영국, 호주, 베트남, 태국 등 19개 도시

참가자 규모 국내 매주 1천2백여명 가량, 총 7,377명 참가, 해외 298명 참가

평화 피켓 릴레이

일　　시 2017년 11월 6일(월) ~ 12월 22일(금) 47일간

장　　소 전국 104개 지역

참가 규모 총 1,633회 진행, 국내 3,297명 참가

2017 한반도평화대회

평화, 나로부터 한반도로 세계로
만인의 바람 평화를 합창하다.

일　　시 2017년 12월 23일(토) 14:00 ~ 17:00

장　　소 광화문 광장

주　　최 평화재단, 통일의병

참가 규모 10,000여명 참가

프로그램

시 간	소요시간 (분)	내용	출연
13:30	30	식전 행사	음악/노래
14:00	10	[평화의 북소리]	청명
14:10	6	개회식•국민의례	국민의례 / 인사말 : 김홍신 (통일의병 공동대표)
14:16	3	영상 I	'한반도 평화기원 글로벌 메시지'
14:19	10	만인 합창 I	역사어린이합창단
14:29	10	평화발언	김제동 (방송인)
14:39	5	다함께 노래	청년평화수비대
14:44	15	만인 합창 II	안치환 (가수)
14:59	3	영상 II	이 땅의 평화를 지켜온 주역, 그 역사적 순간들
15:02	15	만인평화선언·만인의 다짐	법륜스님 (평화재단 이사장)
15:17	18	만인 퍼포먼스	
15:35	75	평화대행진 및 폐회식	광화문 – 안국로타리 – 종각 – 광화문

3) 평화운동 | 행복한 대화 강연회

2016년 전국과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미국 등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진행된 총 100회 희망세상 만들기 강연에 이어, 2017년에도 전국 시·군·구에서 행복한 대화 73강이 진행 되었다.

'행복한대화 강연회'는 많은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인들이 생활 속의 고민과 의문들을 직접 그 자리에서 묻고 지혜롭게 해결의 실마리를 자각할 수 있는 문답식으로 해마다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다. 특히 행복한 대화 강연은 개인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지금 있는 그대로 행복하고 가정은 화목하며 행복한 사회를 구축하는 길을 가고 있다.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스님의 강연 내용은 신간 출판과 유튜브, 카카오스토리, 희망편지 앱, 페이스북 등 온라인과 다양한 SNS 채널로 확산되고 있다.

총 73강 중 청년과 대학생을 위한 강연이 5회 진행되었고, 개인적인 질문보다는 통일과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강연이 9회 이루어졌다. 봉사자와 참가대중 모두 강연시작부터 끝까지 집중도 높으면서도 흥겹고 즐거운 분위기였다.

2017년 행복한 대화 국내 강연 참가자 현황

상반기

일 반 현 황							참가 현황		
순서	날짜	요일	시간	지역	장소	좌석수	참가자 (봉사자제외)	참가율 (좌석수대비)	봉사자
1	2월 21일	화	19:00	양산	양산문화예술회관	840	503	50%	55
2	2월 22일	수	19:00	부산	적십자회관대강당	410	327	80%	41
3	2월 23일	목	19:00	덕양	민방위교육장	550	348	63%	62
4	2월 28일	화	19:00	부안	부안예술회관	499	252	51%	54
5	3월 1일	수	19:00	대구	수성대학교 성요셉관	600	326	54%	39
6	3월 2일	목	19:00	경주	서라벌문화회관	530	349	66%	41
7	3월 7일	화	19:00	서울동작	동작문화원	539	497	92%	71
8	3월 8일	수	19:00	성남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1,804	365	20%	55
9	3월 9일	목	19:00	마산	마산종합운동장 올림픽공연장	370	266	72%	47
10	3월 14일	화	19:00	청주	청주대학교 청암홀	406	322	79%	43
11	3월 15일	수	19:00	대전	서구청대강당	400	350	88%	37
12	3월 16일	목	19:00	서울강동	강동구민회관	608	561	92%	74
13	3월 21일	화	19:30	부산	부산동아대 다우홀	492	211	43%	39
14	3월 22일	수	19:30	분당	성남시청 온누리홀	600	450	75%	10
15	3월 23일	목	19:00	상주	상주문화회관	500	447	89%	42
16	3월 28일	화	19:00	울산	상공회의소	450	458	102%	26
17	3월 29일	수	19:30	대전	충남대 백마홀	600	170	28%	30
18	3월 30일	목	19:00	서울중랑	중랑구민회관	494	435	88%	61
19	4월 4일	화	19:00	부평	부평구청	344	510	148%	57
20	4월 5일	수	19:00	서울 동대문	동대문구청	500	541	108%	49
21	4월 11일	화	19:00	순천	순천문화건강센터	430	497	116%	54
22	4월 12일	수	19:00	구리	구리시청대강당	420	504	120%	43
23	4월 13일	목	19:00	대전	대전 동구청	474	550	116%	47
24	4월 18일	화	19:00	부산 동구	부산시민회관	1,606	1,413	88%	49
25	4월 19일	수	19:00	천안	충남학생교육문화원 소강당	300	280	93%	39
26	4월 20일	목	19:00	강릉	단오문화회관	453	367	81%	56

27	4월 25일	화	19:00	제천	제천문화회관	654	498	76%	62
28	4월 26일	수	19:00	광주	광주시청대회의실	600	442	74%	44
29	4월 27일	목	19:00	안양	안양아트센터	1,126	701	62%	102
30	5월 10일	수	19:30	광주	광주교대풍향문화관	608	235	39%	35
31	5월 11일	목	19:00	진주	경남 과기대100주년 기념관	614	690	112%	76
32	5월 16일	화	19:00	창원	창원 늘푸른전당	648	696	107%	48
33	5월 17일	수	19:00	부산 해운대	부산 디자인센터	345	420	122%	39
34	5월 18일	목	19:00	당진	당진종합복지타운 대강당	380	198	52%	46
35	5월 23일	화	19:00	대구동구	아양아트센터	1,100	1,051	96%	63
36	5월 24일	수	19:00	부산사하	사하구청	620	730	118%	44
37	5월 25일	목	19:00	광명	광명평생학습원	224	269	120%	48
38	5월 30일	화	19:00	분당	성남시청온누리홀	600	692	115%	58
39	5월 31일	수	19:00	포항	포항문화예술회관	972	842	87%	62
40	6월 1일	목	19:00	수원	수원시청대강당	378	629	166%	58
41	6월 6일	화	19:00	광주	광주시청대강당	636	528	83%	16
42	6월 7일	수	19:30	광주	광주교대풍향문화관	660	382	58%	0
43	6월 8일	목	19:00	부산북구	북구문화빙상센터	324	627	194%	52
행복한 대화 강연 상반기 집계						**25,708**	**20,929**	**81%**	**2,074**

하반기

일 반 현 황						참가 현황			
순서	날짜	요일	시간	지역	장소	좌석수	참가자 (봉사자제외)	참가율 (좌석수대비)	봉사자
1	10월 10일	화	19:00	서울 서대문	서울시청	500	422	84%	52
2	10월 11일	수	19:00	구미	구미평생교육원	642	457	71%	39
3	10월 12일	목	19:00	김해	김해시청	490	480	98%	55
4	10월 17일	화	10:30	용인	용인시청3층 에이스홀	525	406	77%	73
5	10월 17일	화	19:00	파주	파주시민회관	797	459	58%	91
6	10월 18일	수	19:00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강당 여민실	320	406	127%	44
7	10월 19일	목	19:00	창원	창원도청	700	727	104%	56
8	10월 25일	수	19:00	전주	전북대학교	592	320	54%	65
9	10월 26일	목	10:30	울산	울산상공회의소	450	452	100%	34
10	10월 26일	목	19:00	안강	안강읍사무소	330	454	138%	35
11	10월 31일	화	10:30	서울노원	노원구청	340	473	139%	41
12	10월 31일	화	19:00	춘천	KBS춘천 총국공개홀	420	520	124%	55
13	11월 1일	수	19:00	대구	대구수성 대성요셉관	600	340	57%	50
14	11월 2일	목	19:00	부산	사하구청 구민홀	390	468	120%	48
15	11월 7일	화	19:00	안산	안산시청 대회의실	430	373	87%	41
16	11월 8일	수	19:00	원주	백운아트홀	678	477	70%	63
17	11월 9일	목	19:00	진주	경남과기대100주년기념관	600	405	68%	53
18	11월 15일	수	19:00	충주	충주학생회관	500	307	61%	54
19	11월 16일	목	10:30	마산	마산315아트센터	455	422	93%	70
20	11월 16일	목	19:00	여수	여수시민회관	556	260	47%	50
21	11월 21일	화	19:00	인천	부평아트센터달누리극장	319	330	103%	52
22	11월 22일	수	19:00	부산	동아대부민캠퍼스다우홀	492	554	113%	47
23	11월 23일	목	19:00	서울구로	구로구청	300	402	134%	46
24	11월 28일	화	19:00	서울서초	서초문화예술회관	600	637	106%	47
25	11월 29일	수	19:00	대구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310	495	160%	50
26	11월 30일	목	10:30	대전	대전 서구청 대강당	400	465	116%	48

27	11월 30일	목	19:00	목포	남도소리 울림터	558	498	89%	57
28	12월 5일	화	19:00	부천	복사골 문화센터	530	530	100%	72
29	12월 6일	수	19:00	부산 해운대	금정구청	242	589	243%	45
30	12월 7일	목	10:30	제주	한라아트홀(한라대)	800	663	83%	52
행복한 대화 강연 하반기 집계						**25,708**	**20,929**	**81%**	**2,074**

4) 평화운동 | 법륜스님과 함께하는 행복학교

우리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모여 행복을 배우고 나누는 모임

한국사회는 지난 70년간 압축성장을 했으나, 경제성장에 비해 국민의 행복도가 낮기 때문에 국민행복도를 높이기 위한 국민운동 차원에서 행복학교가 시작되었다.

현재의 조건에서 마음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 행복도가 달라진다는 법륜스님의 행복메시지를 통해 행복해지는 길을 배우고 있다. 또한 국민행복도를 높이려면 불공정한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불평등한 사회를 평등한 사회로, 불안전한 사회를 안전한 사회로 만드는 사회적 변화도 이루어져야한다.내가 더 행복해지는 길을 연습하고 사회변화를 위해 실천함으로서 우리 사회가 행복해지는 세상을 행복학교에서 만들고자한다.

구 분		1차 행복학교		2차 행복학교	
지역별		개설수	참가자수(명)	개설수	참가자수(명)
합계		1,697	6,680	129	675
서울/제주	주간	144	559	9	42
	저녁	94	400	3	13
	소계	238	959	12	55
강원/경기동부	주간	136	602	16	78
	저녁	92	308	3	14
	소계	228	910	19	92
인천/경기서부	주간	97	360	16	76
	저녁	95	469	9	36
	소계	192	829	25	112
대전/충청	주간	147	505	10	42
	저녁	57	230	2	4
	소계	204	735	12	46
광주/전라	주간	53	187	3	20
	저녁	58	272	1	7
	소계	111	459	4	27
대구/경북	주간	204	568	17	145
	저녁	81	388	6	31
	소계	285	956	23	176

부산/울산	주간	154	576	12	73
	저녁	78	485	5	22
	소계	232	1,061	17	95
경남	주간	137	475	13	50
	저녁	70	296	4	22
	소계	207	771	17	72

법륜스님과 함께하는 행복캠프

행복학교 참가자와 진행자들이 함께 모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행복학교를 통해 변화된 이야기나 감동을 나누고, 법륜스님께 직접 해소되지 못한 고민과 질문을 물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전체 일정 및 내용

기 간 2017년 3월 4일 ~ 11월 12일
캠프 횟수 총 7회
참가자 수 총 2,304명

	날짜	요일	장소	참가 현황	
				행복학교 참가자	진행자
1	3월 4일	토	대전 KT인재개발원	140	217
2	4월 9일	일	대전 KT인재개발원	103	195
3	5월 21일	일	경주 복지근로자회관	159	133
4	6월 11일	일	성남 수정청소년수련관	239	134
5	7월 8일	토	대전 KT인재개발원	205	113
6	10월 14일	토	부산 사상구청	224	125
7	11월 12일	일	서울 시청	219	98
총 인원				1,289	1,015

5) 평화운동 | 청년활동

2017 청춘콘서트를 계기로 평화재단 1. 청년 활동이 다시 활성화 되었다. 그리고 청년 평화역사기행을 통해 대한민국 청년들의 역사인식을 다지고, 나와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평화와 통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활동의 기반을 다졌다.

2017 청춘콘서트 & 청춘박람회

대한민국 청년세대의 공감 미래 연대 정신을 북돋우고, 청년세대의 꿈과 희망이 담긴 공감과 참여의 열린 마당을 취지로 전국의 청년과 일반시민 1만명을 대상으로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개요

출 연	연사 :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 법륜스님, 방송인 김제동, 배우 조인성 뮤지션 : 청명, 딘딘, 조문근밴드, 천마응원단, 정흠밴드, 오늘의라디오
일 시	2017년 10월 28일(토)
장 소	청춘콘서트-서울시청, 청춘박람회-무교로 일대
관객수	참가자 10,000명, 청춘박람회 참가 청년단체_100개, 청년 봉사자 445명
주 최	서울특별시, 평화재단
공동주관	평화재단, 서울시청년허브, 서울시청년정책네트워크

주요 프로그램

11:00	청춘박람회	청년단체 부스 100여개 부스 오픈
11:30		개막식 - 정흠밴드 공연 & 참가단체 소개
13:30		법륜스님 즉문즉설
14:30		쌈빡 콘서트 - 오늘의 라디오
14:40		김제동의 만민공동회
16:00		청춘박람회 폐막 및 뒷정리
17:00	청춘콘서트	청춘뮤지션1 - 극단 청명 '난타공연'
17:20		현실토크 - 박원순 서울시장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꾸다'
17:40		공감토크 - 법륜스님 '청년의 삶과 꿈을 말하다'
18:00		청춘뮤지션2 - 딘딘
18:10		청년 말하는대로 (끌림-이지현 / 마리몬드-윤홍조 / 우리미래-김소희)
18:35		청춘퍼포먼스1 - 1만청춘 파도타기
18:40		천마 응원단
18:45		청춘토크 – 조인성 '청춘이 청춘에게'
19:00		청춘 뮤지션3 조문근 밴드
19:10		감동토크 – 김제동 '새 시대를 열어가는 청춘에게'
19:35		청춘 퍼포먼스2. 1만 떼창

2017 청년 평화역사기행

청년의 역사의식 함양과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청년 평화활동가로 이어질수 있는 활동으로 '수원화성 역사기행', '국립중앙박물관 역사기행' 총 2회에 걸쳐 99명의 청년이 참가하였다.

수원화성 역사기행

취 지 수원화성 답사를 통해 나와 우리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높힘
참가자 2030 청년대학생 40명
일 시 2017년 11월 18일(토)
주요 프로그램 수원화성 박물관 안내 – 무예24기 관람 – 수원화성 답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안내자 이승용 (평화재단 사무총장)

국립중앙박물관 역사기행

취 지 국립중앙박물관을 통해 대한민국 전반의 역사를 이해하고 한국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그려봄

참가자 2030 청년대학생 59명

일 시 2017년 12월 17일(일)

주요 프로그램 국립중앙박물관 답사, 조별 기획프로그램

안내자 이승용 (평화재단 사무총장)

4. 재정보고
5. 함께하는 사람들

전쟁
반대
평화협상

4. 재정보고

2017년도 수입 지출 결산보고서 (2017.01.01 ~ 2017.12.31)

수입

(단위 : 원)

계정과목	결산	내 역
후원금	874,352,289	후원금
교육수강료	5,609,101	열린아카데미, 기획강좌 수강료
모금수입	104,627,502	행복강연, 한반도평화대회
기타수입	53,114,490	이자, 인세, 잡이익 등
수입계	**1,037,703,382**	

지출

(단위 : 원)

계정과목		결산	내 역
목적사업비①	교육수익사업	13,018,321	열린아카데미, 기획강좌
	연구사업	54,730,370	심포지엄, 전문가포럼, 전문가모임, 현안진단, 전문가콜로키움 등
	평화운동사업	330,594,314	"한반도평화대회. 행복강연, 행복학교, 청춘콘서트, 청년평화활동, 평화네트워크활동, 종교인평화모임 등"
	홍보비	8,185,855	후원회원관리, 연례보고서제작 등
	소계	**406,528,860**	
경상비②	운영비	312,003,952	임차료, 건물관리비, 일반운영비
	소 계	**312,003,952**	
지출계(①+②)		718,532,812	
이월금③		319,170,570	
지출합계(①+②+③)		**1,037,703,382**	

5. 함께하는 사람들

지도위원	김명혁	강변교회 원로목사, 한국복음주의 협의회 회장
	백낙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문규현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공동대표
	윤여준	(사)나를 만나는 숲 상임이사
	도 법	대한불교조계종 자성과 쇄신을 위한 결사추진 본부장
	스티븐 린튼	유진벨 재단 이사장
	김형기	평화연구원장
이사장	법 륜	정토회 지도법사
이사	김홍신	소설가,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원장
	조 민	평화교육원장
	추원서	경기대학교 초빙교수
	조성식	포스코에너지 상임고문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권영선	평화재단 기획위원장
	오윤석	선진회계법인 회계사
감사	김기진	사단법인 JTS 대표, 건양대학교 겸임교수
	여영학	법무법인 이산 변호사

총장	**이승용**	평화재단 사무총장

연구위원 (가나다순)	**고경빈**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김영수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남기정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
	동용승	굿파머스연구소 소장
	박영준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
	신원식	예비역 육군 중장
	양 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이병록	전 해군제독
	이정철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진호영	극동대학교 비행교육원 원장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 원장

자원봉사자

- **연구원**
  유미경 박경미 김호정 남미영 이옥숙 문희수 진미란 이원경 권이현

- **교육원**
  서민정 김원섭 김정숙 정운진 권지웅 임은희 서진석 홍지예 서은선 정윤미 임윤석 김주연 최시은 류민희

- **사무국**
  이승용 백혜은 최말순 김경희 김은경 이영재 김기숙 이광희 윤영화 최병현

- **평화운동본부**
  백왕순 노옥재 구자웅 박영숙 강주희 이효상 송치현 정해준 정은주 조아영 강나을